

## 〈대학상생혁신포럼〉 101개 대학 교수 300여명 이재명 후보의 ‘대학체제 대전환’ 지지 선언

- 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학상생혁신포럼’의 회원을 포함한 교수 300여명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학체제 대전환 정책에 대하여 지지선언을 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가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중에서 GDP 1%까지 고등교육 예산 확대, 지역 대학을 위한 4조 원의 교육투자, 정부 내 ‘대학서열 해소위원회’ 설치, 광역단위별 연합대학 또는 공유대학 체제 구축, 초광역 단위별 ‘지역대학혁신법인’ 설치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대학상생혁신포럼을 대표하여 김영철 교수(전남대)는 “지금과 같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는 대학의 위기를 타파할 수 없다.”라고 하며 “여러 당의 고등교육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대학체제 대전환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지지를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교육전문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걸맞은 획기적인 재정확충과 지역대학혁신체제 구축으로 대학서열을 해소하고 고등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 ‘대학상생혁신포럼’은 대학서열체제 해소, 공영형 사립대 육성, 대학교육 무상화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고, 포럼의 임원 대부분이 교육부의 자문역할을 했거나,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국교련),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사교련), '전국 교수노동조합' (교수노조), '한국 사립대학 교수노동조합' (사교조) 등에서 주요 임원을 역임했거나 현

재 임원을 맡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포럼은 광역단위별로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등교육개혁에 관한 대대적인 공론화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 현재 대학상생혁신포럼 공동대표는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김도형(성신여대), 김승희(광주대), 김영석(경상대), 김영우(경주대), 김영철(전남대), 김재형(조선대), 문병효(강원대), 박양진(충남대), 선재원(평택대), 안현효(대구대), 이성로(안동대), 임재홍(방송대), 정태석(전북대), 노진철(경북대) 등이 맡고 있다. (끝)

(붙임1) 지지선언문

(붙임2) 사진

## 대학체제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후보 교수지지선언

우리 현대사를 보면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인재 양성으로 이어졌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벌사회의 형성, 대학 서열화, 과열된 대입시경쟁, 초중등교육의 왜곡, 천문학적 사교육비, 교육 불평등의 심화 등 부정적 측면도 상당합니다. 특히 서열 높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고, 대학교육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대학체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우리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내 ‘대학서열해소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나아가 “권역별 공유국립대학 체제 및 국·사립대학 공유체제와 공동입학·학위 등이 가능한 연합체제 구축”을 대학서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방대학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산업체-지자체-대학 동반성장형 ‘지역대학혁신체제’를 조속히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대학서열의 해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벌사회 해소를 향해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것입니다. 대학서열체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위기 극복, 공영형 사립대 육성, 대학교육 무상화 등을 꾸준히 주장한 ‘대학상생혁신포럼’은 전국의 대학교수연구자들과 함께 “대학체제 대전환으로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고 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는 교육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2022. 02. 28.

이재명을 지지하는  
교수 일동

(붙임2) 사진

